

人文地理學 方法論의 새로운 地平

崔 炳 斗*

《目 次》	
1. 머리말	(2) 政治經濟學的 空間理論
2. 實證主義의 方法論과 그 代案들	4. 統合의 方法論의 擡頭
(1) 實證主義	(1) Giddens의 構造性理論
(2) 人間主義	(2) Foucault의 系譜學의 分析
(3) 構造主義	(3) Habermas의 批判理論
3. 政治經濟學的의 方法論	5. 맺는말
(1) 方法論의 基礎	

1. 머리말

오늘날 人文地理學 方法論은 어떤 혼돈 속에 있다. 1960년대 지배적 방법론이었던 實證主義는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심각한 內的 反省과 강력한 外的 批判을 받게 된다. 人間主體의 行態에 관한 무시와 복잡한 空間現象의 지나친 단순화에 대한 內的 反省은 각각 行態主義의 地理學과 體系理論의 接近方法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여전히 전통적 실증주의의 연장선 상에 놓여있다. 실증주의적 지리학에 대한 外的 批判은 그 方法論的 誤謬와 價值中立性의 현실적 불가능 등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代案的 方法論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代案들은 인

간의 主體의 意識이나 行動 그리고 意味解釋을 강조하는 人間主義의 地理學과, 개별 空間現象들을 창출하는 總體的 構造와 이의 論理的 定形化를 강조하는 構造主義의 地理學으로 대별된다 (그림 1 참조). 오늘날 人文地理學 方法論은 이러한 實證主義의 地理學과 그 代案들 간의 긴장·갈등관계 속에 빠져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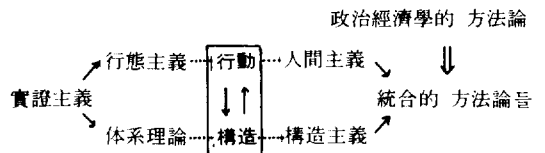


그림 1. 人文地理學 方法論의 展開過程

人文地理學 方法論들 간의 이러한 관계는 또 다른 한편으로 맑시즘에 바탕을 둔 이른바 政治經濟學的의 方法論의 도입에 의해 보다 복잡해 진

* 서울대학교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講師

1) 인문지리학 방법론의 이러한 긴장, 갈등관계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근의 논의에 관하여 다음참조:
 Gale, S. and Olsson, G. (eds.), 1979, *Philosophy in Geography*, D. Reidel, Dordrecht.
 Harvey, M. E. and Holly, B. P. (eds.), 1981, *Themes in Geographic Thought*, Croom Helm, London.
 Stoddart, D. R. (ed.), 1981, *Geography, Ideology and Social Concern*, Blackwell, Oxford.
 Gould, P. and Olsson, G. (eds.), 1982, *A Search for Common Ground*, Pion, London.
 Billinge, M., Gregory, D. and Martin, R. (eds.), 1984, *Recollections of a Revolution*, Macmillan, London.
 Johnston, R. J. (ed.), 1985, *The Future of Geography*, Methuen, London.
 Gregory, D. and Urry, J. (eds.), 1985,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Macmillan, London.

다. 이 방법론은 인간주의적 맑시즘의 입장에 선 Lefebvre와 구조주의적 맑시즘의 입장에 선 Castells와 Harvey 등에 의해 資本主義的 空間의 분석과 이론화에 적용되고 있다. 구조주의적 맑시즘에 바탕을 둔 空間理論은 空間의 形態 또는 現象들이 社會的 過程 또는 構造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하고 社會的 總體的 構造를 우선적으로 해부하고자 한다. 반면 인간주의적 맑시즘에 바탕을 둔 空間理論은 ‘空間’과 ‘社會’간의 辨證法的 關係를 주장하고 社會總體의 분석 및 그 矛盾의 규명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主體의 實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공간이론들은 위에서 언급한 방법론들을 統合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에 의해 再構成되고 있다.

人文地理學 方法論의 이러한 展開過程은 물론 地理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70년대 이후 社會科學 전반에 걸쳐 제기된 實證主義에 대한 회의와 비판은 人間主義(또는 社會行動理論)와 構造主義(또는 社會構造分析)에 대한 관심을 高揚시키는 한편, 政治經濟學을 새롭게 부활·확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代案들은 어떤 통일된 방법론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각각의 연구영역과 접근방법의 배타성을 가지고 상호병존 또는 상호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말경부터 이러한 대안들의 문제점들과 함께 기존의 政治經濟學의 方法論이 가지는 경직성이 지적되면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공통적으로 行動理論이 人間主體의 自律性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社會行動을 조건지우는 總체적 構造의 분석을 경시하고 있는 반면, 構造分析은 社會構造의 規定力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人間行動에 의해 어

떻게 유지/전환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政治經濟學的 이론들이 지나치게 經濟決定論的이며 역사의 機械論的 法則性을 강조함으로써 변화된 현대사회(특히 선진자본주의사회)를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의 行動理論과 構造分析의 統合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Giddens의 構造性理論, Foucault의 系譜學的 分析, 그리고 Habermas의 批判理論 등을 들 수 있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統合의 方法論들은 철학 및 사회과학의 제분야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현대 인문지리학에서도 원용되기 시작하여 그 方法論의 地平을 새롭게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1) 實證主義的 方法論과 이에 대한 代案으로 제시되고 있는 人間主義 및 構造主義 方法論의 기본원리와 문제점들, (2) 맑시즘에 바탕을 두고 정립된 政治經濟學的 空間理論의 方法論의 基礎와 그 세부적 내용들, (3) 이들을 統合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 제시된 새로운 方法論들을 개괄적으로 논의해 봄으로써, 人文地理學 方法論의 새로운 地平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實證主義的 方法論과 그 代案들

方法論(methodology)이란 세계 속의 존재 즉 實體를 어떻게 추론하며, 이를 함의하는 知識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의문과 관련된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方法論’이 그 자체로서 어떤 철

표 1. 實證主義, 人間主義, 構造主義의 기본원리

	實 證 主 義	人 間 主 義	構 造 主 義
存在論	感覺의 세계에서 經驗된 實體	意味世界에서 認知된 實體	表出世界裏面에서 推論된 實體
認識論	感覺的 經驗의 檢證된 知識	(相互)主觀的 意味의 解釋된 知識	推論的 構造의 定形화된 知識
方法論	經驗的 陳述의 檢證	意味陳述의 解釋	推論的 陳述의 定形化

학적 가치를 가진다기 보다는 항상 存在論(ontology)과 認識論(epistemology)을 전제로 해서 이해됨을 의미한다.²⁾ 存在論은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認識論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認知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方法論은 단순히 實證主義에서 흔히 알려진 것처럼 경험적 사실들의 일반화를 위한 形式的 節次나 技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 意味世界的 解釋的 內容이나 實體의 定形化를 위한 理論的 內容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가지 철학적 단계에서 實證主義, 人間主義, 構造主義의 기본원리는 표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實證主義

實證主義는 廣義로 사회과학 일반에서 적용되는 科學主義 또는 經驗主義를 의미하지만, 보다 엄밀한 의미로는 근대 서구철학사에서 Comte와 Mach 이후 論理實證主義(대표적으로 Schlick, Carnap, Hempel 등)에 의해 발달되고, Popper와 Lakatos 등 後期實證主義로 이어온 한 哲學的 思潮를 지칭한다.³⁾ 實證主義에 의하면, 經驗的으로 檢證된 것만이 存在하며, 經驗된 것의 檢證을 통해 얻어진 지식만이 眞理이며, 經驗的 陳述의 檢證(또는 Popper의 反證)만이 유일한 方法論이다. 이러한 實證主義는 철학적 形而上學을 환상이라고 비판하고 實體는 感覺的 印象이나 經驗으로 구성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知識은 원칙적으로 經驗的 存在와 상응해야 하지만,

이를 檢證할 수 있다면 이는 眞理라고 간주된다. 실증주의자들은 이러한 論理的 方法論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경험적 사실들의 검증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 道德的 目的이나 倫理的 基準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實證主義的 方法論은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지리학에 도입되어 1960년대 지리학계에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⁴⁾ 이 방법론의 채택은 기존의 地誌 중심의 서술적 접근에 대한 불만과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들에서처럼 ‘科學的’ 방법론에 대한 매력에서 출발한 것 같다.

이러한 방법론은 Computer의 개발을 통한 자료 처리능력의 향상과 이에 의한 計量的 分析이 용이해짐에 따라 더욱 촉진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인문지리학에 있어서 방법론적 논의는⁵⁾ 주로 經驗的 事實들을 ‘說明’하기 위해 설정된 ‘假說’들이나 ‘모형’들을 채택 또는 기각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說明을 통해 수립된 ‘法則’들과 이의 응용에 내포된 통계적 수학적 技法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에 바탕을 둔 인문지리학에서 공간은 ‘사회적인 것’들과 분리되어 幾何學的 空間으로 추상화되었으며, 인간은 항상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그의 공간행동을 추구하는 經濟人으로 단순화되었다.

1970년대 전반기부터 實證主義 方法論의 경험적 有意性和 법칙이나 이론들을 위한 연구의 사회적 適實性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⁶⁾ 이에 대한 의적비판과 대안들과 더불어 내적 반성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실증주의적 지리학의 내적 반

2) Johnston, R. J., 1983, *Philosophy and Human Geography*, Arnold, London, p. 4 ff 참조.

3) Giddens, A., 1977, "Positivism and its critics" in Giddens, A. (ed.), *Studies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 Hutchinson, London, pp. 29-89, 김종섭 옮김, 정치사회이론연구, 한국사회학연구소.

실증주의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서 다음참조 :

Halfpenny, P., 1982, *Positivism and Sociology*, Allen & Unwin, London.

Bryant, C. G. A. 1985, *Positivism in Social Theory and Research*, Macmillan, London.

4) Johnston, R. J., 1983 (2nd ed.), *Geography and Geographers*, Arnold, London, ch. 3.

李瑋錫, 1982, "計量革命과 空間組織論", 現象과 認識, 제4권, pp. 157-177 참조.

5) Harvey, D., 1969, *Explanation in Geography*, Arnold, London.

Gregory, D., 1978, *Ideology, Science and Human Geography*, Hutchinson, London, pt. 1.

Johnston, R. J. 1983, *op. cit.*, ch. 2 참조.

6) Gregory, D., 1978, *op. cit.*, p. 148 ff 및 Johnston, R. J. 1983, *op. cit.*, ch. 6 참조.

성은 行態主義的 地理學과 體系理論의 空間分析을 발달시킨다. 행태주의적 지리학은 기존의 연구들이 외적 환경의 認識過程을 무시하고 다양한 空間의 行態들을 획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자연적 사회적 환경의 인지과정과 이에 따라 행동을 유발시키는 意思決定 過程을 분석하고자 한다.⁷⁾ 그러나 행태주의적 지리학은 자료수집에 있어서 엄격한 標本調查節次, 태도나 행태의 計量的測定, 결과적 진술들의 지나친 一般化 등에서 실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⁸⁾ 반면 體系理論的 空間分析은 기존의 연구들이 복합적 空間體系에 단순한 가설들을 적용(예, 두 變量 간의 관계분석) 시킴으로써 이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어떤 한 공간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전체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⁹⁾ 그러나 체계이론적 공간분석도 두변량분석의 수리적 확대에 불과한 多變量分析, 실증주의적 가설을 복잡하게 한 것에 지나지않는 공간체계모형, 그리고 도덕적 가치와 분리된 科學的 統制 등을 주장함으로써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오히려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¹⁰⁾

이상에서 논의된 실증주의 방법론이 가지는 주요 문제점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된다. 첫째 實證主義的 方法論은 感覺的 經驗과 理論的 法則 간의 二元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이 방법론에 의하면, 지식 형성에 있어서 감

각적 세계의 경험적 진술의 우월성이 강조되는 반면, 法則 구성에 있어서 理論的 言語의 論理性이 강조되는 모순에 봉착한다.¹¹⁾ 둘째, 이 방법론은 사회과학에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방법론은 자연현상과는 구분되는 사회현상의 蓋然性, 재반복적 관찰의 불가능, 일상적 언어의 유의성 등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이 방법론은 價値와 事實 간을 구분하는 社會統制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이 방법론은 연구대상으로서의 事實의 선택과 분석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관심이거나 가치가 항상 전제되어 있으며, 따라서 價値中立的 研究나 社會統制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실증주의적 지리학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인간주의적 방법론 또는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지리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인간주의적 지리학자들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脫人間化와 沒價値性이라고 비판한다. 즉 이 방법론은 計量化와 이와 관련된 통계적 수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의도성과 행동을 객관화 시킴으로써 意味를 부여하는 人間主體를 배제시켰으며, 또한 사회나 공간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무런 規範的 價値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된다. 구조주의적 지리학자들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現象主義에 입각하여 一般化를 추구함으

- 7) Cox, K. and Colledge, K. G. (eds.), 1981, *Behavioral Problems in Geography Revisited*, Methuen, London.
Thrift, N., 1981, "Behavioural geography" in Wrigley, N. and Bennett, R. J. (eds.), *Quantitative Geograph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p. 352-65.
Coclelis, H. and Colledge, R. G., 1983, "Analytic research, positivism and behavior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73, pp. 331-9.
- 8) 행태주의 지리학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재반응으로, Bunting, T. E. and Guelke, L., 1979, "Behavioral and perception geography: a critical appraisal",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69, pp. 448-62.
Colledge, R. G., 1981, "Misconceptions, misinterpretations and misrepresentations of behavioural approaches in human geography",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13, pp. 1325-44.
- 9) Chisholm, M. 1967, "General systems theory and geography",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 42, pp. 45-52.
Langton, J., 1972, "Potentialities and problems of adopting a systems approach to the study of change in human geography", *Progress in Geography*, Vol. 4, pp. 125-79.
南榮佑, 1979, "system理論과 空間的 分析類型의 分析" 地理學과 地理教育, 제 9 집, pp. 122-135.
- 10) Kennedy, B. A., 1979, "A naughty world"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S4, pp. 550-8.
Gregory, D., 1980, "The ideology of control: systems theory and geography",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 71, pp. 327-42.
- 11) Gregory, D., 1978, *op. cit.*, p. 58ff.

로써 現象의 裏面에 존재하는 構造的 實體에 관해서 어떠한 유의한 설명도 해주질 못한다고 비판한다. 즉 실증주의적 방법론은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기 위해 가시적 현상들 간의 외적 관계를 단순히 일반화시킴으로써 空間的 現象들을 지배하는 構造들을 이론화(또는 추상화)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된다.

(2) 人間主義

人間主義는 어떤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발전한 思潮라기 보다는 人間の 主体的 意志나 意圖, 이에 의해 이루어진 言語의 日常的 行動의 ‘理解’를 추구하는 여러 철학자들이나 사회이론가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에 포함되는 대표적 학자로서, 근대 해석학적 인문과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Vico와 觀念論의 으로 해석되는 Kant와 Hegel의 哲學, Dilthey의 解釋學, M. Weber의 社會學, 그리고 근대 現象學을 정립한 Husserl, 그후 解釋學的 現象學을 발전시킨—물론 다소 간의 상이한 관점들에서—Heidegger와 Sartre 및 Merleau-Ponty (實存主義的 現象學), Schutz(社會學的 現象學), Garfinkel(民俗方法論), Gadamer와 Ricoeur(批判的 解釋學) 그외에 象徵的 想相互作用主義의 Merleau-Ponty, 言語分析哲學의 후기 Wittgenstein과 Winch 등을 들 수 있다.¹²⁾ 이들에 의하면 대체로 意味世界에서 認知된 것만이 存在하며, 참된 知識이란 (相互)主觀性을 통해 의미롭게 해석된 것이며, 따라서 意味世界의 ‘共感的 理解’가 그 方法論으로 제시된다. 즉 실증주의적 방법론과는 달리 人間主義的 方法論은 독립된 經驗世界

를 부정하고 主体와 客体 간의 統合을 강조하며 자연과학적 ‘說明’과 이에 의한 세계의 統制가 아니라 解釋學的 現象學에 바탕을 둔 意味的 ‘解釋’과 상호주관적 세계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인간주의는 70년대 초반부터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문지리학에 도입되었다.¹³⁾ 인간주의적 지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논설들의 일부는 그 방법론에 관한 일반적 논의의 형태를 띠든지 또는 이에 속하는 여러 학파들 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지리학적으로 종합하고자 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떤 특정 학파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現象學的 地理學은 Husserl, Heidegger, Schutz, Garfinkel 등의 견해를 원용하여 人間の 意圖性과 ‘生活된 經驗’을 이해하고자 한다. 觀念主義的 地理學은 주로 Collingwood의 역사철학에 영향을 받고, 역사적 사건들 이면에 있는 ‘思考’(thought) 또는 ‘歷史的 心象’을 해명하고자 한다. 實存主義的 地理學은 Husserl의 철학에서 ‘超越的’ 경향을 제거하고 현상학을 재해석하고자 한 實存主義者들의 사상을 받아들여 ‘本質’(essence)에 앞선 ‘實存’(existence)을 밝히고자 한다. 그의 특징하게 분리된 경향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Wittgenstein이나 Gadamer, Ricoeur에 따라서 言語의 문제를 특히 강조하든지, 또는 Dilthey의 해석학을 지리학에 직접적으로 도입하고자 한 노력들도 있었다. 이러한 人間主義的 方法論에 바탕을 둔 지리학자들은 일상생활적 공간행동의 相互主觀性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先意識的(또는 先反省的) ‘當然性’으로 이해되는 ‘生活된 經驗’의 세계 즉 ‘生活世界’, 그리고 상징적 의미와 가

12) Giddens, A., 1976, *New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Hutchinson, London, pp. 23-70.

Bauman, Z., 1978, *Hermeneutics and Social Science*, Hutchinson, London.

Bleicher, J., 1980, *Contemporary Hermeneutics: Hermeneutics as method, philosophy and Critique*,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13) Ley, D. and Samuels, M. S. (eds.), 1978, *Humanistic Geography: Prospects and Problems*, Croom Helm, London.

Entrikin, J. N., 1976, "Contemporary humanism in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66, pp. 615-32.

Tuan, Y. F., 1976, "Humanistic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74, pp. 353-74.

崔基燁, 1983, "場所의 理解와 象徵的 空間의 解讀", 地理學論叢, 제10호, pp. 151-64.

鄭鎮元, 1984, "人間主義 地理學의 理念과 方法", 地理學論叢, 제11호, pp. 95-110.

李喜演, 1985, "人間主義的 觀點에서의 空間과 場所의 概念", 地域과 環境(洪始煥 華甲論文集)

치가 부여된 景觀 또는 場所(感)을 지리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人間主義的方法論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상징적 意味世界의 理解는 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진 知識으로 부터 도출되며, ‘共感的 理解’는 研究活動을 포함한 모든 사회행동에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공간에 연구자들에 의해 채택된 개념들은 일상생활적 이해에 좌우되고, 연구자들은 일상적 생활로부터 도출된 이러한 理解를 재구성하는데 목적을 두게 된다. 그러나 근대사회가 이룩한 자연환경의 극복은 그 댓가로 사회의 물질적 經濟·政治體系를 일상생활 속에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고 마치 그 자체로서 擬似自律的 法則性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社會的 總體를 구성했다. 따라서 인간주의적 방법론은 이러한 사회적 총체의 영향을 무시하는 理相主義的 解釋學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¹⁴⁾ 人間主義的 方法論은 첫째, 人間의 主觀性이나 行動을 조건지우는 社會總體의 구조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으며, 둘째 行動을 단순히 意味로서만 解釋하고 사회적 변혁을 추구하는 實踐(praxis)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셋째 사회적 規範이나 道德들은 관심의 차이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따라서 넷째 人間關係에 있어서 ‘權力’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3) 構造主義

構造主義는 人間主義와 유사하게 여러 다양한 학파나 경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정의

될 수 없지만,¹⁵⁾ 보다 좁은 의미로는 다음과 같은 前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要素들 간의 關係로 構造化된 總體(totality)는 그 자체의 自律的 屬性과 變化法則을 가지며, 개별 요소들의 특성을 결정한다. 또한 이렇게 구조화된 本質(essence)는 表出世界의 裏面에 존재하며, 표출 세계의 事件들을 지배한다. 이러한 構造主義 方法論은 Durkheim의 사회학과 Saussure의 언어 분석에서 출발하여 Levi-Strauss의 인류학에서 완전히 정형화되며, 여기에 Barthes의 언어학과 Piaget의 심리학, 그리고 Althusser의 맑스즘이 포함되고, 이들 이후 Foucault, Derrida 등을 통해 등장한 소위 後期構造主義도 흔히 포함시킨다.¹⁶⁾ 이들에 의하면, 現象世界와는 독립되어 그 이면에 객관적 사실로서의 構造가 존재하며, 이에 관해 論論된 理論的 知識이 참된 지식이며, 따라서 이를 이론적으로 定形化시키는 方法論이 요구된다. 특히 구조주의 방법론은 사회의 安定的 均衡으로서의 共時性(synchrony)과 變化過程으로서의 通時性(diachrony) 간의 구분, 그리고 어떤 자율적 法則을 가지는 言語體系로서의 langue와 일상생활의 對話를 의미하는 parole 간의 구분을 통하여 개별적 사건들 보다는 체계화된 구조를 강조한다.

지리학에 있어서 구조주의 방법론은 인간주의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實證主義 地理學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논의되었다.¹⁷⁾ 이 방법론은 Ratzel, Vidal 그리고 Durkheim 간의 고전적 논쟁을 통해 근대지리학에서 이미 인식되었으며, 현대지리학에서 Levi-Strauss나 Piaget의 구조주의가 지리학적으로 재해석, 원용되고 있다. 예로, “社會構造”라는 용어가

14) Giddens, A., 1976. *op. cit.*, pp. 51-53.

Gregory, D., 1981, "Human agency and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S 6, pp. 1-16.

15) Piaget, J., 1971. *Structuralism*,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Giddens, A., 1979,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Macmillan, London, pp. 9-48.

16) Sturrock, J. (ed.), 1979, *Structuralism and since: from Levi-Strauss to Derrida*,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Kurzweil, E., 1980. *The Age of Structuralism: Levi-Strauss to Foucaul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이광래역, 구조주의시대, 종로서적.

17) Tuan, Y-F., 1972, "Structuralism, existentialism and environmental perception", *Environment and Behaviour*, Vol. 3, pp. 319-31.

Gregory, D., 1978, "The discourse of the past: phenomenology, structuralism, and historical geography",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Vol. 4, pp. 161-73.

경험적 현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적 현실에 따라 설정된 모델들과 관련된다"고 정의됨에 따라, 공간구조는 세단계로, 즉 경험적 단계(공간유형), 집단적 단계(총체적 공간관계), 형식적 단계(공간도해 또는 모형)으로 구분된다.¹⁸⁾ 지리학에 있어서 구조주의 방법론은 특히 맑시스트적 공간이론을 강조하는 학자들에 의해 보다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위에서 상술했지만, 구조주의적 맑시즘을 추구하는 지리학자들은 空間的 類型 또는 現象과 社會的 過程 또는 構造間을 구분하고, 전자를 후자의 投影體 또는 結果物로 인식한다. 즉 이들에 의하면, 개별 공간적 현상들 이면에 존재하면서 이들을 창출시키는 總體的 社會構造의 연구가 보다 강조된다.

構造主義 方法論에서 인식되는 것처럼, 근대사회는 사회적 지역적 '勞動의 分業'의 발전, 또는 '축적을 위한 축적'으로서의 資本의 循環을 통하여 인간의 일상적 의식으로는 파악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構造的 總體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러한 社會總體(全體)가 더이상 개별적 주체들(부분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으로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완전히 규정하게 됨에 따라 근대사회에서 主体는 脫中心化(decentring)되게 된다. 그러나 근대사회의 이러한 성격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구조주의 방법론은 사회의 구조적 총체가 그 자체의 합법칙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실천적 의식과 행동에 의해서만 전환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¹⁹⁾ 특히 이 방법론은 社會總體의 變革을 추구하는 主体의 實踐性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조주의 방법론이 가지는 문제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이 방법론은 첫째 사회의 構造的 總體가 어떻게 생산, 재생산되는가라는 의문을 무시하고 있으며, 둘째 사회

구조의 理論的 模型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실증주의적 방법론으로 편향하는 경향이 있고, 셋째 共時性/通時性 또는 langue/parole 간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言語使用者(또는 行動者)의 능력을 경시하고, 넷째 따라서 사회행동자의 주체적 의식에 기반을 둔 實踐性을 배제하고 있다.

3. 政治經濟學의 方法論

政治經濟學의 觀點에서 성립한 지리학은 실증주의적 지리학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방법론일 뿐만 아니라 공간이론의 발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리학에서 政治經濟學的 空間理論은 주로 構造主義的 立場에서 도입되었지만, 사실 마르크스의 저작들은 어떤 특정 방법론을 전제로 하여 일관성있게 쓰여진 것은 아니며, 따라서 어떠한(그후 개발된) 방법론 또는 관점에 의해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재구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²⁰⁾ Hegel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그의 초기 저작들은 인간의 實踐과 疎외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人間主義的(또는 헤겔적) 맑시즘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고, 반면 資本主義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의 후기 저작들은 經濟的 土臺와 歷史發展의 合法則性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통적' 맑시즘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방법론상 양 측면을 동시에 담고있는 맑시즘은 Lefebvre와 그리고 Castells, Harvey 등에 의해 주도된 정치경제학적 공간이론의 발전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들의 공간이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마르크스 후기 저작의 기반이 된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의 기초를 간략히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1) 方法論的 基礎

18) Levi-Strauss, C., 1963. *Structural Anthropology*, penguin, Harmondsworth, p. 279 및 Gregory, D. 1978, *op. cit.*, p. 100.

19) Giddens, A., 1979, *op. cit.*, pp. 38-40.

20) Giddens, A., 1971, *Capitalism and Modern Soci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18-21, 林榮一, 朴魯英譯, 資本主義와 現代社會理論, 한길사.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에 의하면, 歷史의 모든 단계들에서의 生産은 어떤 특성을 공유하며, 이러한 특성은 ‘合理的 抽象’(rational abstraction)에 의해 해명된다. ‘抽象’으로서의 生産—즉 自然과 人間 간의 物質的 交換關係—은 社會構成體의 超歷史的 基盤이 되며, 이와 연계된 分배, 교환, 소비를 결정한다. 여기서 ‘抽象’이란 물론 具體性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항상 歷史的으로 특정한 抽象들(예, 자본, 임노동, 계급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具體的 決定者들(예, 노동의 分業, 교환, 가격등)에 關한 省察 과정에서 集約된 것이다. 또한 그 逆의 過程에 따라, 具體的 事件들은 理論的 抽象을 배경으로 해서 관찰되고 개념화 된다. 즉 “抽象은 항상 具象 속에 있으며, 具象은 항상 抽象 속에 있다”.²¹⁾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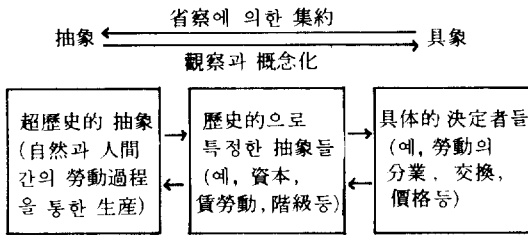


그림 2. 政治經濟學의 方法論에서 抽象과 具象간의 關係

이러한 政治經濟學의 方法論에 기초를 둔 史的 唯物論의 基本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한 사회의 生産은 ‘勞動過程’을 통한 人間과 自然 간의 物質的 交換關係에 좌우된다. 勞動에 의한 自然과의 物質적 교환관계는 그 사회 내 구성원들 간의 社會的 關係를 동반하고, 이러한 이원적 관계들은 勞動力, 原資材와 生産道具(즉 生産手段), 그리고 生産과 勞動力의 조직을 위한 知識 등으로 구성되는 ‘生産力’과 勞動力이 生産手段과 결합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制度들이

나 메카니즘을 의미하는 ‘生産關係’로 설명된다. 한 사회의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總體로 구성되는 ‘生産樣式’은 그 사회 生産의 성격을 결정하며, 세계 역사적으로 5가지(또는 6가지) 상이한 生産양식, 즉 원시공동체, 고대, 봉건, 자본주의, 사회주의 生産양식이 확인된다(아시아적 生産양식은 추후 삽입된다). 한 사회의 生産力과 生産關係는 지배적 生産樣式에 따라서 그 사회의 ‘下部構造’, 즉 經濟的 ‘土臺’를 형성하며, 이러한 物的 土臺는 여타 사회체계를, 즉 政治的—法的, 그리고 知的 制度들로 구성된 上部構造를—항상 또는 마지막 단계에서—규정한다.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발달과정에서 이들 간의 構造的 調應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生産力이 기존의 生産關係의 矛盾關係로 변하게 됨에 따라 階級葛藤에 의해 새로운 生産樣式으로 전환하게 된다.

史的 唯物論은 특히 근대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분석에 역점을 두고 있다.²³⁾ 이에 의하면, 資本主義는 商品生産體系이며, 蓄積을 위한 資本의 循環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되는 生産樣式이다. 모든 상품은 價値의 양면성, 즉 使用價値와 交換價値를 가지며, 이러한 價値는 人間의 勞動에 의해 창출된다. 勞動者가 자신의 生存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한 부분은 剩餘價値가 되며, 利潤, 地代, 利子の 원천이 된다. 資本主義的 生産의 목적은 이러한 剩餘價値의 창출을 통한 資本의 蓄積이다. 잉여가치의 창출은 다음과 같은 資本의 循環過程으로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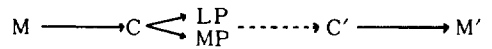


그림 3. 資本循環過程의 圖式

즉 資本家는 그의 資本(M)으로 勞動力(LP)

21) Marx, K., 1973(1857-8), *Grundrisse*, Penguin, Harmondsworth, pp. 101-4.

Sayer, D., 1979, *Marx's Method: Science and Critique in Capital*, Harvester, Sussex.

22) Marx, K., 1970(1859),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Lawrence & Wishart, London, pp. 18-22.

Habermas, J. 1979, "Toward a reconstruction of historical materialism", in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Heinemann, London, pp. 130-77.

23) Mandel, E., 1968, *Marxist Economy Theory*, Merlin, London.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Blackwell, Oxford.

과 기계, 원료, 공장시설 등의 生産手段(MP) 등의 商品(C)을 구입하여 이들을 결합시키는 生産過程(P)을 통해 새로운 商品(C')을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하여 최초의 자본 보다 더 많은 資本(M' = M + ΔM)을 형성한다. 여기서 資本의 利潤率은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 임금의 형태로 지불된 可變資本(v)과 생산수단에 투자된 不變資本(c)의 관계로 파악되는 資本의 '유기적 구성'에 대한 剩餘價值(ΔM 또는 s)의 비율(s/c + v)로 계산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生産力은 증대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資本家들 간의 경쟁은 생산시설이나 기술과 같은 不變資本에의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利潤率을 저하시키고 過剩生産(또는 過小消費)을 가져오는 한편, 勞動者들의 賃金鬭爭은 임금상승에 의한 利潤率의 저하와 함께 資本·賃勞動 간의 갈등관계를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危機에 처하게 되고, 새로운 生産樣式으로 전환하게 된다.

社會構成과 歷史發展에 관한 이러한 政治經濟學的 說明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만약 지나치게 그의 후기 저작들에 편향될 경우, 모든 사회적 활동을 經濟決定主義로 환원시키고 人間性에 의한 實踐的 變革을 機械論的 歷史轉換法則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사실 마르크스가 1883년 사망할 당시 그의 방법론은 사회과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19세기 말경부터 러시아와 독일에서 그의 저작들을 경제결정론적 기계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 바탕을 둔 社會主義運動을 통해 일어난 러시아혁명의 평가과정에서 經濟的 土臺와 歷史的 轉換法則을 강조하는 러시아 '教條主義 맑시즘'과 政治·文化的 上部構造와 階級意識을 강조하는 '서구 맑시즘' 간의 구분이 이루어 졌다. 후

자의 경향을 대표하는 초기 이론가들로서 Lukács와 Gramsci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들을 계승한 독일의 Frankfurt 학파(Adorno, Horkheimer, Marcuse 등)와 프랑스의 실존주의적 맑시즘(Sartre, Merleau-Ponty 등) 등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²⁴⁾

(2) 政治經濟學的 空間理論

마르크스의 史的 唯物論이 다루고 있는 수많은 주제들 중에는 물론 空間의 문제도 포함된다.²⁵⁾ 즉 그에 의하면, 勞動과 土地 간의 공동체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前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은 都市/農村 간의 對立關係와 그후 都市에 의한 農村의 統合을 통한 都市的 資本蓄積過程의 확대에 의해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都市化 過程은 貨幣地代와 함께 土地市場을 등장시키고, 空間을 새로운 生産手段으로 商品化 시킨다. 또한 資本主義的 都市化過程은 地域的 勞動分業의 발전을 통해 資本과 勞動의 空間的 移動을 촉진시키고 세계적 규모의 市場 확대를 통해 價値를 실현시킴으로써 資本의 蓄積을 가능하게 한다. 資本主義的 空間의 이러한 이론적 틀은 1970년대 초부터 Lefebvre, Castells, Harvey 등에 의해 대표되는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자들이나 공간이론가들에 의해 새롭게 주목을 받고 발전적으로 재구성되게 된다.

Henri Lefebvre는 1930년대 이래 프랑스 헤겔적 맑시즘을 정착시키면서 마르크스의 초기저작과 후기저작 간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그는 정통적 맑시즘 뿐만 아니라 Althusser에 의해 제창된 構造主義的 맑시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들 중의 한사람이며, 또한 현대 空間理論에서 정치경제학적 이론들을 도입한 최초의 이

24) Jay, M., 1984, *Marxism and Totality*, Polity, Cambridge. 보다 최근의 Habermas, Foucault, Derrida 등의 연구도 서구맑시즘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Anderson, p., 1983. *In the Tracks of Historical Materialism*, verso, London 참조.

25)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Arnold, London. 최병두 옮김,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

Harvey, D., 1982, *op. cit.*

Quaini, M., 1982, *Geography and Marxism*, Blackwell, Oxford.

른가이다.²⁶⁾ 그에 의하면, 社會體系 또는 構造가 人間行動의 實踐의 介入없이 ‘자연적으로’ 그 자체를 재생산한다는 이론들은 이데올로기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론들은 기존체계를 정당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人間主体의 가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Lefebvre는 이러한 점에서 空間을 순수하게 科學의 客体로 간주하는 理論이나 都市計劃을 비판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空間은 텅빈 기하학적 공간이 아닐 뿐더러 社會構造의 단순한 產物이라기 보다 社會와 상호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²⁷⁾ 이러한 空間의 理論化에서 중요한 것은 空間 그 자체에 대한 科學이 아니라, 空間이 資本主義社會의 維持/轉換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관한 의문을 해명하고 공간문제를 둘러싼 實踐的 行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Lefebvre에 의하면, 空間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日常生活’을 통해 社會的 生産關係가 再生産되는 장소로서, 한 사회의 (再) 生産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⁸⁾ 그러나 資本主義 社會에서의 ‘都市革命’은 이러한 空間의 속성을 잠식시키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을 창출했다. 즉 資本主義는 商品生産을 위한 배경으로서 공간을 끊임없이 정복, 통합시켜 나갔으며, 이에 따라 공간은 그 자체로서 縮소하고 商品化될 수 있는 資源으로 전락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資本主義的 生産力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해 주는 生産關係의 再生産은 危機에 처하게 된다. 즉 生産空間의 확대와 商品化

를 통해 자본주의의 메카니즘을 유지 발전시킨 生産力은 生産關係(즉 勞動力)의 재생산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공간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生活空間을 점증적으로 잠식시키며, 이에 따라 生産關係의 再生産은 점점 더 불가능해진다. Lefebvre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矛盾에 의해 야기되는 都市空間의 危機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生産空間(작업장)에서의 운동은 더이상 절대적 중요성을 지니지 아니하며,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모든 공간상에서 실천적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Manuel Castells은 구조주의적 맑시즘 특히 Althusser의 認識論과 사회의 ‘층위’ 별 構成, 그리고 Poulantzas의 相對的 自律性을 강조하는 國家論을 원용하여 都市空間問題를 규명하고자 한다.²⁹⁾ 그는 Lefebvre와 마찬가지로 기존 도시 이론들을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비판하지만, 그 이유는 매우 다르다. 그에 따르면 이들이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는 단순히 자본주의적 체계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Althusser적 의미) 관계를 초월하여 ‘과학적’ 이론을 정립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³⁰⁾ 또한 Castells은 인간주의적 Marxism에 입각한 공간이론(특히 Lefebvre의 공간이론)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그에 의하면 공간이 인간 주체의 의식적 활동에 의해 생산된다고 가정하는 이러한 이론은 사회생활의 결정적 조건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공간은 社會構造의 物質的 產物이며, 공간상에

26) Kurzweil, E., 1980, *op. cit.*, ch. 3., pp. 51-86.

Jay, M. 1984, *op. cit.*, ch. 9, pp. 276-99.

Martins, M. R., 1982, "The theory of social space in the work of Henri Lefebvre" in Forrest, R., *etal* (eds.), *Urban Political Economy and Social Theory*, Gower, Hampshire.

27) Lefebvre, H., 1976, "Reflections on the politics of space", *Autipode*, No. 8, pp. 30-37.

Soja, E. W., 1980, "The socio-spatial dialectic",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70, pp. 207-25.

28) Lefebvre, H., 1974a, *La productim de l'espace*, Anthropos, Paris.

Lefebvre, H., 1974b, *The Survival of Capitalism*, Allison & Busby, London.

29) Saunders, P., 1981, *Social Theory and the Urban Question*, Hutchinson, London, pp. 180-218.

Mellor, R., 1985, "Marxism and the urban question", in Shaw, M. (ed.), *Marxist Sociology Revisited*, Macmillan, London, pp. 21-49.

서규석, 1986, "구조주의 도시사회학의 비판적 연구", 연세사회학, 제 7 집

김왕배, 1987, "자본주의 도시와 정치경제학적 접근", 연세사회학, 제 8 집, pp. 5-37.

30) Castells, M. 1976, "Theory and ideology in urban sociology" in Pickvance, C. G. (ed.), *Urban Sociology: Critical Essays*, Methuen, London, pp. 33-84.

나타나는 개인의 실천은 단지 사회구조의 과학적 이론을 통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

Castells에 의하면³¹⁾ 都市空間에서 經濟的 層位는 生産과 消費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交換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生産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에 요구되는 勞動力이 再生産되도록 해주는 소비자이다. 특히 도시공간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에서 필수적인 수단들(예로 주택, 병원, 학교, 기타 사회문화시설들)은 '集合的 消費'(collective consumption)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集合的 消費는 生産과 矛盾關係에 봉착한다. 즉 집합적 소비에서 요구되는 使用價值 또는 非利潤的 必要는 生産이 추구하는 交換價值 또는 利潤最大化에 의해 배척된다. 그 결과 집합적 소비재의 부족으로 階級葛藤이 일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國家는 勞動力의 再生産에 필요한 집합적 소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危機는 政治体系 내에서 '과잉결정된' 모순의 표출이며, 이는 결국(마지막 단계에) 經濟的 構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都市社會運動은 政治的인 것이지만 사회의 지배적 층위(즉 경제구조)와 종국적으로 연관될 때만이 유의하다.

David Harvey와 Castells와 유사하게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都市化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의 공간이론은 Castells와 Lefebvre의 이론들 각각으로부터 일정한 유사성과 상이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즉 Harvey는 Castells과는 달리 科學과 이데올로기 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며, 공간에 관한 맑시스트 이론이 자유주의적 이론에 비해 절대적으로 非이데올로기적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는 Lefebvre의 주장, 즉 "오늘날 都市化는 産業社會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여전히 産業社會 및 이를 구성하는 構造들이 都市化를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즉 그에 의하면 都市化

와 都市의 '建造環境'(built environment)은 資本主義社會의 總體的 構造에 의해 결정된다.³²⁾

Harvey에 의하면,³³⁾ 都市化는 産業資本의 生産物, 즉 建造環境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이에 대한 투자는 價值 및 剩餘價値의 生産과 상품의 消費에 의한 勞動力의 再生産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은 3단계 순환과정으로 설명된다. 먼저 商品生産을 통한 價值와 剩餘價値의 생산과 이 상품의 消費를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資本이 蓄積된다(제1차 순환). 耐久性 生産財와 그 建造環境(공장, 사무실등)에 투자된 자본(즉 固定資本)은 잉여가치의 확대재생산을, 耐久性 消費財와 그 建造環境(주택 등)에 소요된 자본(즉 消費基金)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기여한다(제2차 순환). 또한 자본축적 과정에서 國家로 이전된 부분은 科學技術에 투자되어 잉여가치 생산의 기반을, 그리고 社會間接施設(공공주택, 도로등)에 투자되어 노동력 재생산의 기반을 형성한다(제3차 순환). 都市過程은 이와같은 세 단계 순환과정을 통해 전체 資本蓄積過程을 위한 물질적 下部構造의 창출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순환과정의 각 단계들은 어떤 危機를 안고 있으며,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단계의 순환으로 이행한다. 즉 제1차 순환에서 개별 자본가들 간의 경쟁에 의해 過剩生産이 야기되고 利潤率이 低下한다. 이 위기는 제2, 3차 순환에의 투자로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그러나 제2, 3차 순환에의 과잉투자는 固定資産이나 消費基金의 價值切下를 야기하고, 科學技術이나 都市下部施設에의 투자로 資本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 시킴으로써 제1차 순환에서의 과잉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순환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위기들은 도시갈등과 운동을 유발한다. Harvey는 이러한 都市運動이 일어나는 장소를 作業場과 住居地로 구분하지만, 도시운동은 결국 資本과 賃勞動 간의 기본적 계급갈등의

31)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Arnold, London.

Castells, M., 1983, *The City and the Grassroots*, Arnold, London.

32) Harvey, D., 1973, *op. cit.*, p. 18. and p. 302 ff.

33) Harvey, D., 1981, "The urban process under capitalism: a framework for analysis", in Dear, M. and Scott, A. J. (eds.),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Methuen, London, pp. 91-122.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⁴⁾

이상에서 살펴본 政治經濟學的 空間理論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본 논문의 목적을 벗어나지만, 方法論的 側面에서 몇가지 주요 주제들을 간략히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의 實踐的 意識 및 行動과 사회의 總體的 構造는 여하히 관련되어, 인간주의 방법론과 구조주의 방법론이 가지는 문제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즉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行動者의 實踐은 사회의 총체적 구조에 의해 조건지워지며, 사회공간적 구조는 이러한 실천에 의해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둘째, ‘공간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간의 관계는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³⁶⁾ 空間은 그 속에 담고 있는 社會的 事物들과 분리되어 인식될 수는 없지만, 空間的 現象은 社會的 構造의 단순한 투영체가 아니다. 한 사회의 공간현상은 분명 그 사회를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어떤 기본 조직원리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서 구조화된 공간은 다시 그(地域) 社會의 生産力과 生産關係를 변화시켜 社會的 總體的 構成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위의 주제와 연관된 것으로, 空間的 地域問題는 社會的 階級問題와 관련되지만,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다. 즉 한 사

회의 기본모순인 階級矛盾은 특정한 자연조건들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발현되며, 또한 이렇게 발현된 갈등적 대립관계는 그 지역주민들의 실천적 의식에 따라 상이한 양상과 전개과정을 가지고 地域社會運動을 유발한다. 넷째,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政治經濟學的 空間理論은 지나치게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공간문제는 경제적 구조에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生産空間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生活空間에서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내포한다. 또한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은 기존 전통적 이론들을 재해석 또는 상호결합 함으로써 그 이론적 배타성을 극복해야 한다.³⁷⁾

4. 統合的 方法論의 擡頭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퇴조하면서 인간주의적 방법론(行動理論)과 구조주의적 방법론(構造分析)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이들은 사회의 특정차원, 즉 主觀的 行動 또는 客觀的 構造를 배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主体/客体 또는 行

34) Harvey, D., 1977, "Labor, capital and class struggle around the built environment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Politics and Society*, Vol. 6, pp. 265-95.

35) 최근 Castells와 Harvey는 도시공간의 물질적 토대로부터 인간 의식 또는 문화에 그들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있다. Castells, M., 1983, *op. cit.*

Harvey, D., 1985, *Consciousness and the Urban Experience*, Blackwell, Oxford.

그리고 구조주의적 맑시즘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재반응으로서 다음을 참조;

Duncan, J. and Ley, D., 1982, "Structural Marxism and human geography: a critical assess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72, pp. 30-59.

Chouinard, V. and Fincher, R., 1983, "A critique of structural Marxism and human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73, pp. 137-46.

Eyles, J., 1981, "Why geography cannot be Marxist: towards an understanding of lived experience",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13, pp. 1371-88.

Fincher, R., 1983, "The inconsistency of eclecticism",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15, pp. 607-22.

36) '공간'과 '사회'에 관한 맑시스트지리학 내 논쟁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

Peet, R., 1978, "Materialism, social formation and socio-spatial relations", *Cahiers de Geographie du Quebec*, Vol. 22, pp. 147-57.

Soja, E., 1980, *op. cit.*

Eliot Hurst, M., 1980, "Geography, social science and society: towards a de-definition", *Australian Geographical Studies*, Vol. 18, pp. 3-21.

Smith, N., 1981, "Degeneracy in theory and practice: spatial interactionism and radical eclecticis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5, pp. 111-18.

37) 예로 다음을 참조: Byung-Doo Choi, 1987, *Space and Social Theory: A Geographical Critique and Reconstruction*, (ph. D. diss.), The University of Leeds. 최병두, 1988, "비판적 공간이론을 위한 논제들", *세계문화*(겨울호), pp. 39-66; 박영신, 1986, "도시와 사회변동: 맑스에서 베버로", *사회학연구*, No 4, pp. 29-65.

動/構造를 양분하는 이원론적 방법론으로 지속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이원론적 방법론들은 Kant의 철학과 Marx의 사회이론에 의해 분화되게 되었으며, Max Weber의 사회이론은 이들을 통합적으로 극복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이원론적 방법론들은 여전히 서로 평행한 채 상호보완적 또는 갈등적 관계를 가지면서 최근까지 병존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行動理論과 構造分析 간을 새롭게 統合하고 그 통합된 방법론으로 史的 唯物論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 중 대표적인 것이 Giddens의 構造性理論, Foucault의 系譜學的 權力分析 Habermas의 意思疏通의 行動理論 등이다.

(2) Giddens의 構造性理論

Anthony Giddens의 構造性(Structuration)理論은 19세기 근대사회이론들(Marx, Durchein, Max Weber)의 재해석 뿐만 아니라 근세기 사회이론의 세가지 주요 파라다임으로 간주되는 解釋學的 社會學, 機能主義 그리고 構造主義의 비판적 고찰과 이의 종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³⁸⁾ 이 이론은 實踐에 의한 社會行動과 이를 통해(재)생산된 社會構造 간의 상호관계를 이론화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行動人은 항상 능동적이며 지혜롭고, 사회구조의 조건하에서 그의 行動을 통해 意圖的/非意圖的의 결과 즉 사회구조를 생산하고 재생산한다. 사회구조는 행동체계의 속성으로서, 行動을 認識的/非認識的으로 조건지우며 이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게 한다. 즉 構造는 行動의 의도적/비의도적 결과이며 동시에 行動의 인식적/비인식적 조건이다. Giddens는 이를 '構造의 二元

性'이라 칭하고, 행동이론과 구조분석 간을 연결하는 기본개념으로 간주한다. 行動의 차원과 構造의 차원 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4와 같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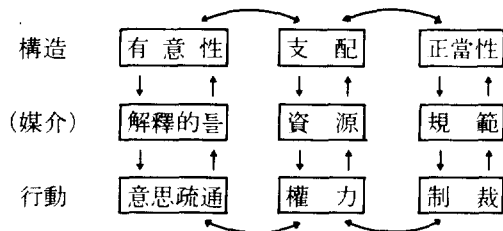


그림 4. Giddens의 構造性理論에 있어서 構造와 行動간의 관계
(Giddens, 1976, p. 122., Gregory, 1981, p. 9. 참조)

Giddens에 의하면, 사회행동은 항상 행동인들 간의 相互行動으로 이루어지며 상호행동은 세가지 기본 요소들, 즉 의미로운 意思疏通, 규범적 制裁 그리고 權力關係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각 공동의 知識에 바탕을 둔 解釋의 틀, 권리의 실현 및 의무의 수행과 관련된 社會的 規範 그리고 행동인의 능력 실현을 위해 동원되는 人的 및 物的資源을 媒介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構造는 행동인들이 상호행동에서 도출하고 또 재생산하는 規則들(즉 解釋의 틀과 規範들)과 權威的(즉 政治的) 및 割當的(즉 經濟的) 資源들로 구성된다. 한 사회체계의 構造의 屬性은 상호행동 속에 내재된 구조들의 세가지 측면, 즉 有意性, 正當性, 그리고 支配로 성격 지워진다. 이들은 각각 해석적 틀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의미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규범의 적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그리고 자원의 동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권력관계를 통해 再生産되며 또한 이러한 3가지 유형의 상호행동을 條件지운다. Giddens는 이렇게

38) Giddens, A., 1971, *op. cit.*; Giddens, A., 1976, *op. cit.*; Giddens, 1979, *op. cit.* 및 Giddens, A., 1977, "Functionalism: apres la lutte", in Giddens, A.(ed.), 1977, *op. cit.*, pp. 129-134.

39) Giddens, A., 1976, *op. cit.*, p. 122ff; Giddens, 1979, *op. cit.*, p. 82ff; 및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Polity, Cambridge, p. 29ff.
Gregory, D., 1981, *op. cit.*, p. 9.

40) Giddens, A., 1981,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Macmillan, London, p. 3, and *passim*.
Giddens, A., 1984, *op. cit.*, 특히 Ch. 3, reprinted in Gregory, D. and Urry, J. (eds.), 1985,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Macmillan, London, pp. 265-95.

하여 (再)生産된 社會構造가 維持 또는 轉換되는 조건을 ‘構造性’이라고 부르며, 사회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構造性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Giddens는 이와같은 構造性 理論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時·空間的 關係가 相互行動 및 社會體系의 재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그 자신이 인정하는 바와같이 Giddens는 지리학(특히 Hågerstrand의 時·空地理學, 그의 맑시스트 지리학,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여러가지 새로운 공간개념들을 제시한다.⁴⁰⁾ 그는 相互行動이 공간적 出現/不在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社會體系의 공간적 배경을 지칭하기 위해 local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이 개념과 관련시켜 距離性(distanciation)이라는 新造語를 개발하여 소규모 사회를 상호행동의 時·空間的 關係에서 距離性이 낮음으로 특징지우고 근대사회로 올수록 이것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사회발전의 내적 논리에 입각한 進化論에 반대하여 사회가 插畫的(episodic)으로 轉換하게 되는 時·空間的 邊(time-space edg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構造性理論과 時·空間的 개념들을 사용하여 Giddens는 마르크스의 史的 唯物論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生産樣式의 개념으로 社會(構成體)를 규명하는 것은 經濟決定論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社會의 變

動을 階級葛藤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들을 계급문제로 還元시키는 것이며, 社會歷史를 合目的的 發展으로 설명하는 것은 進化論的 機能主義에 빠지는 것이다. Giddens는 단지 마르크스의 저술에서 추상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實踐의 개념만이 중요한 것으로 인정한다.⁴¹⁾ 그에 의해 제시된 대안적 설명에 따르면 한 사회의 성격은 그 사회의 時·空間的 距離性의 樣式에 따라 결정된다. 前資本主義社會에서 階級은 존재했지만 階級分析은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權威的 支配가 더 중요했다. 그리고 歷史상의 모든 사회는 時·空間的 邊에 따라 형성된 間社會的(inter-societal) 體系 속에서 插畫的으로 轉換한다.

Giddens의 構造性理論이 社會理論의 발전에 기여한 점은 첫째 행동이론과 구조분석 간을 종합하여 行動과 構造간의 상호관계를 이론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둘째 사회이론에서 時·空間的 개념들이 매우 유의함을 강조했다는 점이다.⁴²⁾ 그러나 그의 이론은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⁴³⁾ 첫째, Giddens는 사회의 構造的 條件들 하에서 인간의 지혜로움을 강조하지만, 이의 근원은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그의 이론에서 인간주체들의 象徵的-規範的 行動이 生活世界를 (再)生産하는 방법과 이들이 道具的-戰略的 行動을 통해 物質的 世界를 (再)生産하는 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혼동되고 있다.⁴⁴⁾ 셋째, 그의 構

41) Giddens, A., 1981, *op. cit.*, pp. 1-2.

42) 構造性理論에 관한 지리학자들의 관심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

Carlstein, T., 1981, "The Sociology of structuration in time and space: a time-geographic assessment of Giddens' s theory", *Svensk Geografisk Arshok*, Vol. 57, pp. 41-57.

Thrift, N., 1983, "On the determination of social action in space and tim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1, pp. 23-57.

Gregory, D., 1984, "Space, time and politics in social theory: an interview with Anthony Gidde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2, pp. 123-32.

Dear, M. J. and Moos, A. I., 1986, "Structuration theory in urban analysis: 1, theoretical exegesis; 2, empirical applic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18, pp. 231-52 and 351-73.

43) Wright, E. O., 1983, "Giddens' s critique of Marxism", *New Left Review*, No. 138, pp. 11-35.

Thompson, J. B., 1984, "The theory of structuration: an assessment of the contribution of Anthony Giddens", in Thompson, J. B. (ed), *Studies in the Theory of Ideology, Polity*, Cambridge, pp. 148-72.

Callinicos, A., 1985, "Anthony Giddens: a contemporary critique", *Theory and Society*, Vol. 14, pp. 133-66.

Bernstein, R. J., 1986, "Structuration as critical theory", *Praxis International*, Vol. 6, pp. 235-49.

44) Habermas, J., 1982, "A reply to my critics", in Thompson, J. B. and Held, D. (eds.), *Habermas: Critical Debates*, Macmillan, London, p. 268.

造 개념은 모호하게 두가지 의미(즉 相互行動을 媒介하는 法則과 資源으로서의 構造들과 한 社會的 体系의 속성으로서의 構造)를 내포하고 있다. 넷째, Giddens는 그의 이론이 批判的 社會理論을 지향한다고 주장하지만, 社會變革에 요구되는 實踐의 과제를 아직 이론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그의 空間 개념들은 대부분 공간의 物理的 性格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의 象徵的 性格과 그 再生産過程을 무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史的 唯物論에 관한 그의 비판과 대안은 機能主義的 分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進化論의이다 (예, 距離性이 낮음에서 높음으로의 進化).

(2) Foucault의 系譜學的 分析

Michel Foucault의 초기 考古學的(archaeological) 연구는 프랑스 構造主義運動이 한창 진행되던 기간(대체로 1955~60년대 중반) 중에 쓰여졌으며, 사실 구조주의자들의 의문과 용어를 많이 원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초기 연구는 그 자신이 구조주의자임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분명 구조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러나 知識의 歷史에 관한 그의 초기 연구가 知識의 認識素(épistémé)의 轉換을 적절히 설명해 주지 못함에 따라 1970년대 그의 연구는 Nietzsche 철학의 재구성을 통해 정립된 系譜學的(genealogical) 方法論으로 전환하게 된다.⁴⁵⁾ 70년대 그의 연구주제는 知識이 어떻게 權力과 관련되어 人間主體를 지배하게 되는가라는 의문

이었다. 그의 系譜學的 ‘權力-知識’의 분석은 인간의 意識이나 行動과 억압적 社會構造 간에 어떤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가를 암시하고 있다. 즉 ‘權力에의 意志’에 바탕을 둔 사회적 相互行動에서 權力關係는 특정사회에 복잡하게 구성된 戰略의 상황으로부터 意圖的으로 도출되지만 이러한 戰略의 行動에 의해(再)生産된 權力構造는 개인의 의도를 능가해 버리는 非主體的인 것이 된다. 그러나 權力關係는 언제나 억압적으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人間實踐을 통한 抵抗의 다원성을 항상 동반하며, 저항은 기본 支配構造 속에서 항상 수동적이고 패배를 자인하는 反作用的인 것이 아니라 實踐의 차원에서 억압적 權力關係를 생산적으로 해체 시키는 것이다.

Foucault는 그의 초기 저작들에서부터 空間을 주요 논제들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그의 후기 연구에서 공간은 역사적 현실의 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⁴⁶⁾ 즉 系譜學的 方法論은 철학적 의미로서의 構造, 즉 表出裏面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本質(essence)를 부정하고(空間的) 表出 자체를 存在의 기반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空間은 텅빈 무한공간이 아니라 權力에의 意志에 의해 만들어진 事件들이 刻印된 表出이며, 支配의 유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對決의 場으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공간개념은 그의 역사적 연구에 적용되어 空間은 ‘權力-知識’의 행사에 있어 그 媒体로 간주된다. Foucault는 이의 경험적 사례로 圓形監獄(Panopticon)의 空間構造를 제시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圓形監獄은 權力의

45) 초기 고고학적 연구로,

Foucault, M., 1970 (1966), *The Order of Things: An Archaeology of the Human Sciences*, Tavistock, London, 이광래역, 1987, 말과 사물, 민음사.

Foucault, M., 1972 (1969),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Tavistock, London.

70년대 系譜學的 權力分析으로,

Foucault, M., 1977 (1975),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Penguin, Harmondsworth.

Foucault, M., 1978 (1976),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Penguin, P Penguin, Harmondsworth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Harvester, Sussex.

Foucault의 연구에 관한 많은 논의를 대표적으로,

Lemert, C., and Gillan, G., 1982, *Michel Foucault: Social Theory and Transgress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Dreyfus, H. and Rabinow, P., 1982,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Harvester, Sussex.

46) 空間에 관한 Foucault의 직접적인 논의로 Foucault, M., 1977. *op. cit* 외에 Foucault, M., 1980, "Questions on geography" in Foucault, M., 1980, *op. cit*, pp. 63-77.

Foucault, M. 1984, "Space, knowledge and power", in Rabinow, p. (ed), *Foucault: Reader*, Pantheon, London, pp. 139-256.

‘本質’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權力-知識의 특정 형태가 어떤 폐쇄된 空間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물론 어떤 空間構造가 權力關係에 중요한 역할을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어떤 본연적 機能을 가지지는 않는다. 달리 말해서 空間構造는 人間主体의 實踐과 상응할 때만 의도된 대로 기능하며, 만약 이들간에 서로 조응하지 않을 경우 의도된 것과는 정반대로 기능하게 된다.

Foucault는(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史的 唯物論으로부터 도출된 사고들을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저작들이 政治的 合理化를 추구하는 知識의 歷史로부터 해방된 實證의-批判的 知識 개발의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史的 唯物論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한다.⁴⁷⁾ 즉 Foucault는 表出裏面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本質’을 부정하기 때문에 生産様式이라는 단일 본질이 모든 現象들을 규정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에 의하면 權力이란 피지배계급과 대립관계를 가지는 支配階級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人間關係에서도 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權力-知識’의 言表에 따라 과학적 담시즘의 非이데올로기성은 부정되며, 어떠한 知識일지라도 權力과 야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Foucault는 그의 系譜學的方法論을 “知識이나 權力的 構成등 客體의 영역을 그 主体에 관한 고려없이 설명할 수 있는 역사기술의 한 형

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실 그의 연구는 흔히 主体가 생략된 또는 脫中心化된 분석이라고 비판받고 있다.⁴⁸⁾ 그러나 그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자신의 연구 중심주제는 權力이 아니라 ‘主体’임을 강조한다.⁴⁹⁾ 달리 말해서 그의 연구가 철학 사회이론 역사분석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한 점은 바로 역사 속에서 人間主体가 어떻게 權力-知識에 의해 客體化되고 희생되어 왔는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系譜學的方法論은 解釋學과 構造主義를 능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 덧붙여서 평가될 점들 중의 하나는 이 방법론이 철학 및 사회이론에서 왜 空間의 문제가 배제되어 왔는가라는 의문을 밝히고, 또 공간이 어떻게 權力關係의 媒体로서 작용하고 있는가를 예시하고 있다는 점이다.⁵⁰⁾

그러나 Foucault의 연구가 몇가지 주요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은 사실이다.⁵¹⁾ 첫째, Foucault의 연구는 知識과 權力이 政治的 合理化의 歷史에서 끊임없이 야합하여 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구를 정당하게 해줄 批判的 理性과 그리고 權力과 야합했기 때문에 비판되어져야 할 戰略的 理性 간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그의 系譜學的方法論이 Nietzsche의 철학을 재구성하여 정립되었다 사실은 어떠한 방법론이라 할지라도 意味理解라는 해석학적 모멘트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그의 연구는 일상생활 속의 規範을 權力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또한 戰略的이며 抑壓的으로 행사되는 權力과 이에 抵抗하

47) Poster, M., 1984, *Foucault, Marxism and History*, Polity, London.

48) Foucault, M., 1977, “Nietzsche, genealogy, history” in Foucault, M. (ed.),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s*, Blackwell, Oxford, pp. 139-164.

Giddens, A., 1984, “Critical notes: Foucault on timing and spacing” in Giddens, A., *op. cit.*, pp. 145-58.

49) Foucault, M., 1982, “The subject and power”, afterword to Dreyfus, H. L. and Rabinow., *op. cit.*, pp. 208-26.

50) Foucault의 공간분석에 관한 논의로서 다음을 참조:

Wright, G. and Rabinow, P., 1982, “Spatialization of power: a discussion of the work of Michel Foucault”, *Skyline*, March, pp. 14-20.

Driver, F., 1985, “Power, space and the body: a critical assessment of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3, pp. 425-46.

최병두, 1988, “역사, 권력, 공간: Michel Foucault와 역사지리학” *地理學論叢*, 제14호.

51) Fraser, N., 1981, “Foucault on modern power: empirical insights and normative confusions”, *Praxis International*, Vol. 1, pp. 272-87.

Habermas, J., 1986, “The genealogical writing of history: on some aporias in Foucault’s theory of power”,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al Theory*, Vol. 10, pp. 1-10.

는 生産的 解放의 權力이 어떻게 구분 될 수 있는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넷째, 圓形監獄을 근대 空間構造의 파라타임으로 예시한 Foucault의 연구는 공간을 전략적 힘의 場으로 지나치게 일반화 시킴으로써 공간의 規範的 性格을 무시하고 있다.

(3) Habermas의 批判理論

Jürgen Habermas는 서구막시즘의 전통을 이어받고 이를 더욱 발전시킨 Frankfurt 학파의 제 2 세대의 대표자로서, 마르크스의 저작들 뿐만 아니라 근·현대 철학과 사회이론들을 재구성하여 社會批判理論의 새로운 기반을 정립하고자 한다.⁵²⁾ 그의 초기 저작은 고전적 認識論들을 재해석하여 ‘認識的 關心’과 知識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⁵³⁾ 그에 의하면, 인간의 認識的 關心은 세가지 유형, 즉 技術的, 實踐的, 解放的 關心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세가지 유형의 知識, 즉 經驗的-分析的, 歷史的-解釋學的, 批判的(解放的) 知識이 형성된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의 認識的 關心과 知識은 人間存在의 세가지 차원들, 즉 勞動(또는 道具的 行動), (意

思疏通的) 相互行動, 그리고 權力에 각각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적 틀 속에서 Habermas는 이러한 연구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이를 발전시켜 인간의 ‘先反省的’ 意識과 이를 표현하는 對話에 기반을 둔 言說(discourse) 이론을 제시한다.⁵⁴⁾ 그에 의하면, ‘理想的 對話狀況’에서 진리와 규범은 각각 理論的 說明과 實踐的 解釋에 바탕을 둔 言說을 통해 도출된다.

勞動과 相互行動 간의 구분은 Habermas의 후기 저작들에서 ‘成功志向的 行動’ 또는 合目的的 行動(이는 다시 道具的 行動과 戰略的 行動으로 세분됨)과 ‘理解到達的 行動’ 또는 意思疏通的 行動 간의 구분으로 발전한다.⁵⁵⁾ 合目的的 行動은 인간의 理性에 있어서 認識的-道具的 合理性에, 그리고 意思疏通的 行動은 道德的-實踐的 合理性에 각각 바탕을 두고 있다. Habermas는 行動 차원에서의 이러한 구분과 상응하게 世界(構造)의 영역에서 合目的的 行動들이 制度化된 ‘體系’와 상징적 상호행동을 유도하는 規範들로 구성된 ‘生活世界’ 간을 구분하고, 각각의 合理性의 실현에 의해 이루어지는 體系의 合理化와 生活世界의 合理化로 구분한다. 그에

표 2. Habermas의 批判理論에 있어서 行動理論과 構造分析간의 關係(Gregory. 1978, P. 70 참조)

人間存在의 次元	認識的 關心	知識의 유형	有意성의 기준	行動의 유형	行動의 合理性	世界(構造) 의 영역	世界의 合理化
勞 動	技術的	經驗的- 分析的	理論的 說明	合目的的	認識的- 道具的	客觀的 體系	體系의 合理化
相互行動	實踐的	歷史的- 解釋學的	實踐的 解釋	意思疏通的	道德的- 實踐的	社會的 生活世界	生活世界 의 合理化

(초기) 認識論의 研究

(후기) 社會理論的 研究

- 52) Held, D., 1980,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utchinson, London.
 McCarthy, T., 1984, *The Critical Theory of Jürgen Habermas*, Polity, Cambridge.
 White, S. K., 1988, *The Recent work of Jürgen Habermas: Reason, Justice and Moder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53) Habermas, J., 1972,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Heinemann, London.
- 54) Habermas, J., 1973, "Wahrheits theorien", in Farenbach, H. (ed); *Wirklichkeit and Reflexion*, Neske, Pfullingen, pp. 211-65.
 Habermas, J., 1979,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Heinemann, London, ch. 1.
- 55) Habermas, J., 1982, *op. cit.*, p. 263ff.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Heinemann, London, p. 285 ff.

의하면 合目的的 行動과 이의 객관적(物質的) 결과물들의 기능적 상호관계로서의 体系는 体系理論의 方法論에 따라 분석되며, 意思疏通의 行動과 이러한 行動志向들의 조화를 통해 형성되는 상호주관적 生活世界는 解釋學的 方法論에 따라 이해된다. 만약 어느 한 方法論이 배타적으로 강조될 경우, 社會의 어느 한 측면만 보게 되고, 理相主義의 解釋學이나 맹목적 体系理論에 빠질 위험이 있다.

Habermas에 의하면, 後期 資本主義社會는 危機를 담지한 사회이며, 그 위기는 사회의 각 측면으로 轉移되고 있다.⁵⁶⁾ 즉 初期 資本主義社會에서 심각했던 經濟的 危機는 國家의 介入으로 어느정도 해소되었지만, 이는 政策決定에 있어서 合理性의 危機를 가져왔다. 이러한 經濟·政治体系的 危機는 다시 生活世界로부터 대중지지가 철회되는 正當性的 危機와 경제적 수요나 동기가 위축되는 動機的 危機로 轉移되었다. Habermas의 최근 저작에서 이러한 危機理論은 ‘生活世界의 內的 植民化’를 강조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한다.⁵⁷⁾ 즉 그에 의하면, 서구사회의 발전은 돈과 권력에 의해 추진되는 경제·정치적 体系의 合理化가 對話를 통해 意思疏通의 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相互行動을 脫言語화시키고 그 合理化를 뒷받침해줄 生活世界를 內的으로 植民化시킴에 따라 어떤 矛盾的 危機에 처해 있다. 따라서 최근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社會運動들(예로, 生態主義 運動, 反核 運動, 地域社會運動, 女性運動등)은 內的 植民化에 처해있는 生活世界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이해된다. Habermas에 의하면, 이러한 危機는 경제적 발전이나 국가정치의 개선에 의해서는 해소될 수 없으며, 일상생활 속에 잠재되어 있는 意思疏通의 理性에 의해 生活世界를 재건함으로써 만이 해소될 수 있다.

Habermas 批判理論의 이러한 발전과정은 史的 唯物論에 관한 그의 비판적 재구성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⁵⁸⁾ 그에 의하면 ‘實踐’의 개념과 관련된 마르크스의 ‘勞動’ 개념이 Hegel의 관념철학을 극복한 것이지만 意思疏通的 相互行動을 무시하고 인간생활의 모든 범주들이 勞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또한 사회발전을 단순히 認識的 道具의 合理化(즉 生産力의 확대) 과정으로 보는 마르크스의 ‘生産樣式’ 개념은 언어사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相互行動을 유도하고 이에 의해 재생산되는 사회의 道德的-實踐的 合理化過程을 포괄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는 經濟的 土臺에서 전적으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國家가 生活世界(또는 市民社會)에 개입함으로써 야기되는 正當性的 危機이다. 달리 말해서 마르크스의 분석은 生活世界의 再生産에 관한 문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資本主義的 社會合理化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危機에 처하게 되는가를 올바르게 지적해 주지 못하고 있다.

Habermas의 批判理論이 철학 및 사회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점은 지대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날 학문적 言說의 바탕이 되는 고전적 철학 및 사회이론들을 재구성하여 社會批判理論의 새로운 기반을 정립했다는 점과 근대 서구사회의 合理化過程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것이 당면한 危機를 해소하기 위해 意思疏通的 理性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그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의 이론은 “總體的 범주들에서 개발된 해질적 맑시스트 사회이론이 그 부분들 즉 行動理論과 体系理論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⁵⁹⁾ 이를 치밀하게 재결합시키고 있다.

그러나 Habermas의 이론 역시 여러가지 중요

56) Habermas, J., 1976, *Legitimation Crisis*, Heinemann, London.

57) Habermas, J.,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2,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Heinemann, London, p.318ff.

58) Habermas, J., 1972, *op. cit.*, pt. 1; Habermas, J., 1979, *op. cit.*, ch. 4; Habermas, J. 1976, *op. cit.*; Habermas, J., 1987, *op. cit.*, p. 332 ff.

59) Habermas, J., 1981, “Dialectics of rationalization: interview”, *Telos*, No. 49, p. 13.

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⁶⁰⁾ 첫째, 그는 언어사용을 통한 相互行動의 規範性을 강조하지만, 그 자신이 한 때 지적인 것처럼 “言語는 또한 支配와 社會의 權力의 媒体이다”라는 사실을 그 후 무시하고 있다.⁶¹⁾ 둘째, ‘理想的 對話狀況’을 전제로 하는 그의 言說理論은 어떤 주어진 時·空間 하에서의 言說이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관념론적이며 절차론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셋째, Habermas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內的 發展論理를 가지는 社會合理化 過程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변화의 외적 영향력을 무시하고 있다. 넷째, 그는 현대 資本主義社會의 危機가 意思疏通的 理性이 회복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실제 生活空間을 植民化시키는 政治經濟的 体系의 變革없이 어떻게 그 위기가 해소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Habermas는 Giddens나 Foucault와는 달리 사회의 空間的 側面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⁶²⁾ 行動의 合理性이나 社會의 合理化가 空間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

5. 맺는말

이상의 논의는 人文地理學에서 實證主義의 도입 이후 계속되어 온 方法論의 변천과정을 行動과 構造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또한 앞으로 그 지평이 어떻게 확대되어 나갈 것

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行動理論과 構造分析 간을 統合시키고자 하는 최근의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물론 한국지리학계에서는 아직 人間主義的 方法論과 構造主義的 方法論 조차도 충분히 거론되지 않은 상태이며,⁶³⁾ 따라서 이를 통합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리학에서 왜 절실히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의 제기는 時機尙早라고 인식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방법론들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자명하게 밝혀진 것 같다. 즉 이들은 行動과 構造의 양차원에서 어느 한쪽을 배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行動은 어떻게 條件지워지는가’ 또는 ‘構造는 어떻게 (再)生産되는가’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실증주의적 방법론과 그 대안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政治經濟學的 方法論과 이에 바탕을 둔 空間理論도 논의의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한국지리학에서 제대로 거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소개 및 그 유용성과 한계가 지적되어야 한다. 사실 Foucault가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마르크스의 사상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개념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歷史를 쓰기[또는 社會·空間理論을 정립하기]란 불가능하다”.⁶⁴⁾ 그러나 政治經濟學的 方法論이 경직 또는 왜곡되게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이에 배타적으로 집착하여 非마르크스트 철학이나 社會·空間理論을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무시해서도 안된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統合的 方法論들은 (Gidd-

60) Giddens, A., 1982, "Reason without revolution? Habermas's *Theories of Communicative Action*", *Praxis International*, Vol. 2, pp. 318-38.

Thompson, J. B., 1983, "Rationality and social rationalization: an assessment of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Sociology*, Vol. 17, pp. 278-94.

61) Habermas, J., 1977, "A review of Gadamer's *Truth and Method*" in Dallmayr, F. and McCarthy, T. (eds.), *Understanding and Social Inquiry*, Notre Dame University press, Notre Dame, p. 360.

62) 그러나 이점은 Habermas의 비판이론이 지리학이나 공간 및 지역분석에 원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하여 다음을 참조:

Lewis, J. and Melville, B., 1978, "The politics of epistemology in regional science" in Batey, P. W. J., (ed.), *Theory and Method in Urban and Regional Analysis*, Pion, London, pp. 82-100.

Gregory, D., 1978, *op. cit.*

Forester, J. 1980, "Critical theory and planning practic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46, pp. 275-86.

63) 金仁, 1983, "地理學에서의 패러다임 理解와 爭點", 地理學論叢, 제10호, pp. 15-25.

權容友, 1988, "現代人文地理學의 思潮", 地理學論叢, 제14호, pp. 331-44.

64) Foucault, M., 1980, *op. cit.*, p. 15.

ens의 構造性理論을 제외하고) 아직 지리학에서 널리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들은 80년대 이후 철학과 사회이론 전반에 걸쳐 급속히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학에도 조만간 도입되어 응용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統合的 方法論들의 원용은 기존의 實證主義的 地理學과 그 代案들 그리고 政治經濟學의 空間理論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또한 현대 자본주의적 공간이 처한 危機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에 어떤 준거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人文地理學 方法論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물론 이 방법론들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긴 하지만, 이들을 종합적으로 원용하여 인문지리학 방법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몇가지 주제들 즉 空間의 概念(또는 空間-社會 關係), 空間의 構成(또는 空間行動-構造 關係), 資本主義 空間(그리고 그 危機)에 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空間의 概念(空間-社會 關係)

① 空間은 社會로부터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어떤 構成·轉換法則을 가지는 實在(entity)가 아니며, 그 속에서 再生産되는 社會와 항상 함께 再生産된다. 즉 空間과 社會는 存在論的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空間은 그 속에 있는 社會의 事物들에 의해 항상 그 意味가 부여되고 社會의 事物이 처해진 空間의 位置에 의해 상황지워진다.

② 그러나 空間은 단순히 社會의 投影體가 아니라 社會의 維持/轉換의 場이며 媒體이다. 즉 한 사회의 空間行動과 構造는 그 사회의 構造의 總體에 의해 규정되지만, 이러한 규정에 구조화된 空間은 그 社會總體의 再構成에 영향을 미친다.

③ 또한 空間과 社會는 歷史的-分析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社會의 事物들의 空間의 現象들이 歷史的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복잡해 짐에 따라 개별 空間現象으로부터 社會的 事物들의 總體의 屬性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空間과 社會 간의 分析的 分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별 空間現象들은 그 자체로서 허위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다.

B. 空間의 構成(空間行動-構造 關係)

① 空間行動은 空間構造에 의해 조건지워지지

만 항상 지혜로운(또는 合理的인) 行動人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空間構造를 再生産한다. 空間構造는 空間行動의 產物이며, 또한 空間行動을 조건지우고 이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게 한다.

② 空間行動은 成功志向의인 道具的 또는 戰略的 行動과 理解志向의인 意思疏通의 行動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非認識的-非意圖的 方法으로 物質的 要素들로 구성된 경제·정치적 體系空間과 認識的-意圖的 方法으로 象徵的 要素로 구성된 사회·문화적 生活空間을 生産한다.

③ 人間主体의 認識과 意圖를 능가하는 體系空間의 維持/轉換 메카니즘은 體系理論的 分析(또는 構造分析)을 통해 說明되며, 主体의 認識과 意圖 내에서 (再) 再生産되는 生活空間은 解釋學的 方法論에 따라 理解된다. 이 두가지 방법론 중 해석학적 방법론이 체계이론적 방법론에 우선한다. 왜냐하면, 모든 言說은 言語에 의해 表現되며 따라서 항상 解釋學的 모멘트를 가진다.

C. 資本主義 空間(그리고 그 危機)

① 空間의 合理化는 生活空間에서의 言說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며 體系空間의 合理化와 生活空間의 合理化 간의 변증법적 균형에 의한 空間發展이 이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體系空間의 發展은 生活空間의 維持를 위한 物質的 條件을 형성하고 生活空間에서 制度化된 이론적 진리와 실천적 규범은 體系空間의 고도화를 뒷받침한다.

② 그러나 현대 資本主義 空間의 發展은 어떤 危機를 담지하고 있다. 즉 돈과 權力에의 意志로 동기화된 道具的-戰略的 空間行動에 의해 非意圖的(또는 非主体的)으로 (再) 再生産된 經濟·政治的 體系空間은 意思疏通的 空間行動을 脫言語化시키고 社會·文化的 生活空間을 植民化시킴으로써 결국 그 자신의 合理化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 발전을 저해하는 矛盾的 危機에 봉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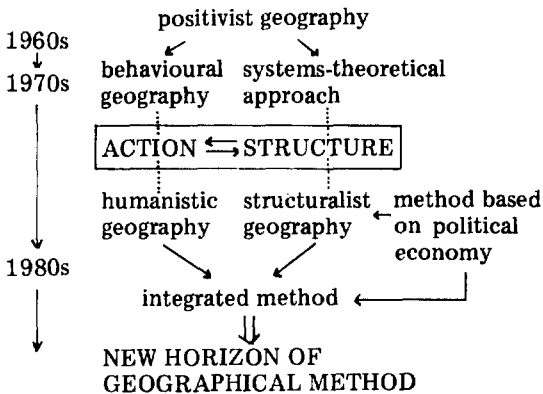
③ 體系空間에 의해 植民化된 生活空間을 회복하고 현대 資本主義 空間의 危機를 해소하기 위해 物質的 體系空間의 變革에 앞서서 일상적 生活空間에 잠재된 意思疏通的 理性을 實踐的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New Horizon of Geographical Method

Byung-Doo Choi*

Summary

In this paper, I consider the development of methods in contemporary human geography in terms of a dialectical relation of action and structure, and try to draw a new horizon of method toward which geographical research and spatial theory would develop.



The positivist geography which was dominant during 1960s has been faced both with serious internal reflections and strong external criticisms in the 1970s. The internal reflections that pointed out its ignorance of spatial behaviour of decision-makers and its simplification of complex spatial relations have developed behavioural geography and systems-theoretical approach. Yet this kinds of alternatives have still stood on the positivist geography, even though they have seemed to be more real and complicate than the previous one. The external criticisms that have argued against the positivist method as phenomenalism and instrumentalism suggest some alternatives: humanistic geography which

emphasizes intention and action of human subject and meaning-understanding, and structuralist geography which stresses on social structure as a totality which would produce spatial phenomena, and a theoretical formulation.

Human geography today can be characterized by a strain and conflict between these methods, and hence requires a synthetic integration between them.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in general are in the same in which theories of action and structural analysis have been complementary or conflict with each other.

Human geography has fallen into a further problematic with the introduction of a method based on so-called political economy. This method has been suggested not merely as an alternative to the positivist geography, but also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critical analysis of space. The political economy of space which has analyzed the capitalist space and tried to theorize its transformation may be seen either as following humanistic (or Hegelian) Marxism, such as represented in Lefebvre's work, or as following structuralist Marxism, such as developed in Castells's or Harvey's work. The spatial theory following humanistic Marxism has argued for a dialectic relation between 'the spatial' and 'the social', and given more attention to practicing human agents than to explaining social structures. On the contrary, that based on structuralist Marxism has argued for social structures producing spatial phenomena, and focused on theorising the totality of structures. Even though these two perspectives tend more recently to be convergent in a way that structuralist-Marxist geographers relate the domain

* Instructor,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conomic and political structures with that of action in their studies of urban culture and experience under capitalism, the political economy of space needs an integrated method with which one can overcome difficulties of orthodox Marxism.

Some novel works in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end of 1970s which have oriented towards an integrated method relating a series of concepts of action and structure, and reconstructing historical materialism. They include Giddens's theory of structuration, Foucault's geneological analysis of power-knowledge, and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There are, of course, som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se works. Giddens develops a theory which relates explicitly the domain of action and that of structure in terms of what he calls the 'duality of structure', and wants to bring time-space relations into the core of social theory. Foucault writes a history in which strategically intentional but nonsubjective power relations have emerged and operated by virtue of multiple forms of constraint within specific spaces, while refusing to elaborate any theory which would underlie a political rationalization. Habermas analyzes how the Western rationaliza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has colonized the lifeworld in which we communicate each other, and wants to formulate a new normative foundation for critical theory of society which highlights communicative reason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spatial concepts).

On the basis of the above consideration, this paper draws a new horizon of method in human geography and spatial theory, some essential ideas of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ncept of space especially in terms of its relation to society.* Space is not an ontological entity which is independent of society and has its own laws of constitution and transformation, but it can be produced and reproduced only by virtue of its relation to society. Yet space is not merely a mater-

ial product of society, but also a place and medium in and through which society can be maintained or transformed.

- (2) *the constitution of space in terms of the relation between action and structure.* Spatial actors who are always knowledgeable under conditions of socio-spatial structure produce and reproduce their context of action, that is, structure; and spatial structures as results of human action enable as well as constrain it. Spatial actions can be distinguished between instrumental-strategic action oriented to success and communicative action oriented to understanding, which (re)produce respectively two different spheres of spatial structure in different ways: the material structure of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space in an unacknowledged and unintended way, and the symbolic structure of social and cultural life-space in an acknowledged and intended way.
- (3) *the capitalist space in terms of its rationalization.* The ideal development of space would balance the rationalizations of system-space and life-space in a way that system-space provides material condi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life-space, and the life-space supports the rationalization of system-space for its further development. But the development of capitalist space in reality is paradoxical and hence crisis-ridden. The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pace, propelled with the steering media like money, and power, has outstripped the significance of communicative action, and colonized the life-space. That is, we no longer live in a space mediated communicative action, but one created for and by money and power. But no matter how seriously our everyday life-space has been monetarized and bureaucratized, here lies nevertheless the practical potential which would rehabilitate the meaning of space, the meaning of our life on the Earth.